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마르코 14,12-26)

폼 나게 줘라

배영길 베드로 신부

모양 빠지게
챙기지 마라.

줘야 할 거면,
맘 편히 줘라.

그래야 폼 나는 거다.

거저 받은 것이지만,
폼 나게 나누며 사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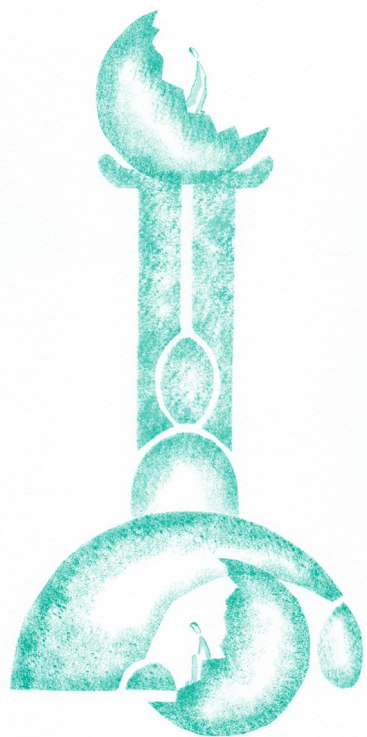
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제1독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을 들려줍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가르고 그 피를 제단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방식으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명과 법규를 충실히 지킨다면,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탈출 19,5-6 참조) 복을 내리신다는 계약입니다(탈출 20,6; 신명 30,16 참조). 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모세는 소를 잡아 번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제단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탈출 24,4-6 참조).

제2독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느님과 새 계약을 맺는 제사였음을 알려 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옛 계약(구약)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느님과 맺은 계약은 새 계약(신약)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중개가 아닌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대사제’를 통해서, 불완전한 제물인 동물의 피가 아닌 흠 없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완전한 제물’이 되시어, 당신의 피를 십자가라는 제단과 우리 위에 흘리시며 맺으시는 ‘완전한 계약’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신앙의 성조들이 맺은 계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이 단 한 번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제사는 날마다 성찬례 안에서 되풀이되어 기억되고 재현됩니다. 우리는 성찬례를 거행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영원한 계약을 맺으시려고 ‘몸’과 ‘피’를 내주신 주님의 깊고 진한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도 다른 이에게 몸과 피를 내주도록 재촉합니다(2코린 5,14 참조).

최정훈 바오로 신부



묵상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다. 이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목요일에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과, 사제가 거행하는 성체성사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기념하고 묵상한다.

6월 7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사제 성화의 날)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은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공경하며 그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날이다. 이 대축일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금요일에 지내는데, 예수 성심이 성체성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중세 때 시작하여 점차 보편화되었다. 1856년 비오 9세 교황 때 교회의 전례력에 도입되었으며,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대축일로 지내고 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 1995년 부터 해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에 ‘사제 성화의 날’을 지내고 있다. 이날은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복음 선포의 직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는 가운데 완전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날이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람이 사제직의 존귀함을 깨닫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와 희생을 바치는 날이기도 하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축성하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 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와 나는
같습니다.
(요한 10, 30)
바오로 알콘전조

예수님 마음

이해인 수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6월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
어려서는 나처럼 엄마 품에 안기시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며
하늘 나라 애기를 들려 주시던
참 부드럽고 따뜻한 예수님 마음

6월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불쌍한 사람 아픈 사람
두루 찾아 다니시며
정성껏 위로하고 보살펴 주신
참 넓고 깊은 예수님 마음

죄인을 용서하실 때는
어진 아버지 같으셨고
열심히 설교하실 때는
선생님 같으셨고
들에 핀 꽃들을 바라보실 땐
시인 같으셨을 예수님 마음

십자가에 못박히실 땐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시며
괴로움과 아픔에 무너지시고
창에 찢리신 예수님 마음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시어
승리의 큰 기쁨 세상에 가져 오신
참 놀랍고 새로운 예수님 마음

내 작은 마음이
그 크신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하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다
더 많이 닮고 싶다
예수님 마음처럼
빨간 장미가 핏빛으로 타는 6월

6월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예수 성심 성월 특집] '예수 성심' 알아보기

예수 성심 성월이 돌아왔다. 6월 한 달 동안 교회는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고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신 예수님 마음을 목상하도록 권한다. 비오 12세 교황은 회칙 「물을 길으리라」를 통해 "예수 성심 신심이야말로 매우 효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탁월한 방편이며, 현대 사회에 적합한 신심으로 하느님 사랑을 배우는 '가장 효험있는 학교'라 불렀다.

예수 성심이란

사전적 의미로 '예수 성심'(聖心)은 사람을 향한 사랑의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육체적 심장을 가리킨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은 예수의 심장만을 분리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신비와 수난과 죽음, 또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 등을 통한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16)라는 구절처럼,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은 창조를 통해, 특히 당신 모상인 인간의 창조를 통해 드러났고,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아들을 세상에 파견하고 그로 인해 수난하고 대신 죽게 함으로써 온전히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후 창에 찔리셨을 때 피와 물이 나온 장면(요한 19,34)은 교회 초기부터 중세 신비가들에게 이르기까지 열렬한 목상의 대상이 됐다. 특별히 교부들은 예수의 성심을 사랑과 모든 초자연 은총의 샘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을 '천상 보화의 창고에서 무수한 은혜가 쏟아져 나온 것'에 비유했다. 이 성심에서 흐른 물과 피는 죄로 죽은 인간을 깨끗이 씻고 새 생명을 주는 세례의 물과 새로 태어난 백성을 먹여 기르는 성체성사를 상징한다고 봤다. 마치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갈빗대)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세주의 상처 입은 성심인 예수의 옆구리에서 그의 피를 나누어 받은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예수 성심은 성체성사의 원천이다.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이 성체성사로 드러난 것이다. 이 성사는 당신 자녀들을 영적으로 키우시고 영원히 살리고자 하는, 하느님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이라 할 것이다.

예수 성심 공경의 역사

예수 성심에 대한 공경은 중세기 이전에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었다. 그러다 12세기 무렵 성 안셀모, 성 베르나르도, 성 보나벤투라가 중심이 돼 예수 성심을 공경했고, 이후 특히 13~14세기 신비가들이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을 수립 발전시켜 나갔다.

14세기에는 예수 성심 공경이 '새 신심 운동'이라는 신심 운동과 관련해 번져갔다. 16세기 들어서는 예수회가 예수 성심 공경을 활성화했다.

17세기에 안센주의와 같은 이단적인 사상이 성체성사를 경시하자, 성심에 대한 공경이 공적으로 시작됐다. '예수 성심과 성모 신심의 전례 공경의 창시자'로 불린 프랑스 오라토리오 회원 성 에우데스(Jean Eudes, 1601~1680)는 1672년 10월 20일 프랑스 주교들 인준을 받아 교회 최초로 예수 성심 축일 미사를 봉헌했다. 그는 예수 성심을 위하여 처음으로 시간 전례를 바치도록 한 인물이다.

예수 성심 공경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세계적으로 보급된 계기는 프랑스 파레이르모니알 성 마리아 방문 수녀회의 성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수녀(Margarita-Maria Alacoque, 1647~1690)다.

알라코크 수녀는 1673~1675년 여러 차례 예수 성심에 대한 신비 체험을 했는데, 그 환시에서 예수님은 성녀에게 예수 성심 축일을 제정하고 예수 성심 금요일과 성시간을 장려하라는 임무를 줬다.

6월 예수 성심 성월은 프랑스 우아조(Osieux) 수도원과 여러 지역에서 신심 행사로 시작됐으며, 1873년 비오 9세 교황이 대사 반포와 동시에 정식 인가했다. 예수 성심 축일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부터 대축일로 기념해 오고 있다.

예수 성심 전교 수도회 관구장 고무찬(베네딕토) 신부는 "현대에서 예수 성심 공경의 의미는 이웃을 향한 봉사와 정의를 향한 투신 등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고 신부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1986년 성 마리아 방문 수녀원에 남긴 편지를 예로 들었는데, 당시 교황은 "그리스도의 성심에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과 이웃의 사랑을 어떻게 함께 일치하게 하는 지 알게 된다"며 "이런 방식으로 미움과 폭력이 만연된 곳에 예수 성심의 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구세주 성심에 의해서 요청되는 참된 보상"이라고 썼다.

<가톨릭 신문>



“성체는 성인들의 상급이 아니라 죄인들의 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거행합니다.* 오늘 복음은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마르 14,12-16,22-26 참조).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손에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마르 14,22).
*역주: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다음 목요일을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로 지내는 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는 사목적 배려로 주일로 옮겨 지낸다.

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성사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몸짓은 선물을 주시는 겸손한 몸짓, 나눔의 몸짓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생애의 정점에서, 군중을 배불리 먹이시기 위해 빵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한 파스카 만찬에서 몸소 당신 자신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삶의 목표가 나누는 데 있음을, 가장 위대한 일은 섬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빵 한 조각에서 하느님의 위대함을 재발견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나눔이 넘치는 약함 안에서 말입니다. ‘약함’이야말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쪼개지고 부서지는 빵처럼 약해지십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그분의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약함에서 말입니다. ‘성체에서 약함은 힘입니다.’ 곧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스스로 작아지는 사랑의 힘, 양분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 쪼개지고 나뉘지는 사랑의 힘, 우리 모두를 일치로 결합하기 위해 산산이 부서지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체의 약함 안에 돋보이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곧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신 것은 ‘당신께서 배반당하신 밤’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가장 깊은 심연을 겪고 계시는 동안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선사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같은 접시에 담긴 요리에 손을 대는 제자가 주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배반이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가장 큰 선으로 약에 대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아니오”에 대해 자비의 “예”로 응답하십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시고, 그를 위해 값을 치르십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이 행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우리가 많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아시지만,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에 일치시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성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성체는 성인들에게 내려지는 상급이 아니라,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모두 받아 먹어라.’”

우리가 생명의 빵을 받아 모실 때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약함에 새로운 의미를 주시기 위해 오십니다. 당신 눈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그분과 함께 나누다면, 그분께서 만족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비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우리의 비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약함을 사랑으로 고쳐줍니다. 어떤 약함입니까?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약함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원망을 느끼는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우리 자신 안으로 고립되는 약함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애처롭게 여기고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한 채 불평을 늘어놓는 약함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현존을 통해, 당신의 빵을 통해, 성체를 통해 우리를 낮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체는 이러한 (자기)폐쇄에 맞서는 효과적인 약입니다. 사실 생명의 빵이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온유하게 바꿔줍니다.

성체는 우리를 낮게 해 줍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일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성체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는 방식, 형제들에게 자신을 쪼개어 내어주는 그분의 능력, 선으로 악에 대응하는 역량을 닮게 해 줍니다. 성체는 우리 자신의 바깥으로 나가서 사랑을 통해 타인의 약함에 고개 숙이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체의 논리입니다. 곧 타인을 사랑하고, 그들이 약해질 때 그들을 도와주도록 우리의 약함을 낮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평생 동안 지속됩니다. 오늘 성무일도에서 우리는 찬미가를 바치며 기도했습니다. 찬미가의 네 구절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찬미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어 인생에서 우리의 여행 동료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식사 때에는 음식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의 순간에는, 찢값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다스리시며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그 상급을 찾으려 합니다(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아침기도 찬미가 참조).

성체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명 또한 선물이 되도록, 당신의 태중에서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던 거룩한 동정녀께서 우리를 도우시길 빕니다. 성체가 우리를 모든 타인을 위한 선물이 되게 해주길 빕니다.

번역 이창욱: 출처 바티칸 뉴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5월 26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교중미사(10:00am)...	260명	주일헌금	\$4,603.00
아침미사(8:00am)...	89명	교무금	\$4,030.00
영어미사(11:45am)...	60명	감사헌금	\$.00
청년미사(5:30pm)...	39명	안젤라 펀드	\$.00
미사참례 총	448명	성물방	\$.00

교무금 명단				
강성태(4~6)	박근우(5)	소종선(5)	이세철(4~6)	장해선(5)
강철석(5)	박상환(6~12)	손칠영(5)	이진승(5)	정예근(6)
강익수(6)	박해영(5)	송정길(5)	이홍규(5)	정창래(6~7)
김기영(5~6)	배광욱(5)	엄정현(3~4)	임재형(4~5)	지승남(5)
김성길(1~4)	배지현(5)	이강연(5)	임혜수(5)	최동순(5)
김현길(5)	설재규(5)	이동현(4~5)	장민재(6)	한성인(5)

교무금 월 약정자							
강규상	김영홍	박근우	서미영	양경직	이경우	전근섭	한성인
강성태	김원봉	박남준	서상희	양경환	이동춘	전윤희	한춘하
강용조	김일환	박남철	서용원	양국일	이복화	정승욱	한혜선
고창민	김주희	박두환	서재욱	양재준	이봉조	정용선	허민환
곽흥배	김진용	박미헬	서혁규	오경옥	이석균	정지윤	허성일
김 훈	김태규	박송자	석대진	오규형	이성철	정창래	홍동욱
김경숙	김향순	박영자	설재규	오상수	이수진	조보현	홍서훈
김남우	김현길	박재석	성정창	오현정	이승구	조성환	홍영기
김대용	김호수	박재영	소종선	왕복실	이종길	조소춘	
김루시아	김홍섭	박정미	손영덕	원동훈	이주미	지승남	
김면기	김희연	박종흠	손칠영	원용방	이창호	차영수	
김미자	나창섭	박찬규	송경자	유경애	이준복	천병호	
김미혜	남기원	박평하	송무남	유선아	이현두	최동순	
김봉섭	남상우	방영택	송용덕	유성열	이현옥	최문석	
김상순	남현석	배광욱	송창률	유영한	이홍규	최문영	
김성강	문명재	배정훈	심충섭	유종현	이훈철	최양숙	
김세경	민병선	배정희	심호용	윤석진	장민재	최영갑	
김영길	민수종	백현숙	안금환	윤성진	장해선	최옥란	
김영철	민주미	서동민	안승범	이건수	전 훈	최지남	

교무금 새로 약정 하신 분							
강비호	김홍자	박영희	안용주	이동현	임재형	최철영	홍상진
강세진	도한익	박정원	오명혜	이수진	임창현	최혜민	
고영호	문명재	방남규	오재찬	이세철	장윤아	한규빈	
고창민	문병호	배진희	우장희	이은경	장해선	한규향	
고창영	문쌍국	서영범	유경애	이 완	차유경	한찬욱	
김덕자	문은숙	서정애	윤지영	이창욱	최규복	한현복	
김영배	민수종	석영길	이강연	이치선	최문영	허성우	
김용준	박경미	스티브조	이길종	이현옥	최승원	현무경	
김용학	박병호	심재숙	이동선	임용택	최제인	홍남식	

교무금 약정하신 분중에 신자번호가 없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자번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AA 기금 납부 현황	
2024년 5월 26일 (삼위일체 대축일)	
교구 할당액.....	\$ 62,000.00
달성률	38.43%
약정액	\$ 20,750.00
누계 납부액.....	\$ 23,831.00
금주 납부액.....	\$ 317.00

2023 AA 기금 납부자		
김정복	이덕환	장해선
박해영	이성철	정창래
소정선	장민재	한성인

금주 후원금	
소성당 리모델링 기부금	신승재

교무금/ AA 기금 약정/ 봉헌 안내

- 교무금 약정서를 사무실로 제출
- 교무금 내실 때 월 표지, 이름, 신자번호를 기재
- 2024년 AA기금 약정도 사무실에 문의
- 온라인 봉헌시 이름, 신자 번호, 봉헌 내역 기재
- 생미사, 연령미사 봉헌은 우편으로 미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봉사			
날짜	해설	독서	복사
6/1(토) 오후 5:30			
6/2(일) 오전 8:00	김선민	고근배 고숙영	전지우 박채효
6/2(일) 오전 10:00	박미헬	이국진 이정란	남소호 최예은 박시은 김소현 박시윤
6/2(일) 오전 11:45	DerekLee	성리디아 정범진	양다해 하혜지
6/8(토) 오후 5:30			
6/9(일) 오전 8:00	박미헬	최인영 남송은	양다해 소현서
6/9(일) 오전 10:00	이경환	한찬욱 한은열	장재은 김아론 양다현
6/9(일) 오전 11:45	Louise	최예은 하혜지	김소현 허수인

본당 캘린더	
6월 9일	차타누가 공소 미사
6월 23일	뉴난 공소 미사

패밀리미사 안내

- 6월과 7월은 패밀리미사가 없습니다.

소공동체 첫 반장 모임

- 일시: 6월 16일(일) 11:45am
- 장소: 소성당
- 문의: 성당사무실 770-455-1380

망치회 김밥, 컵라면 판매

- 일시: 6월 2일(일) 1장소: 친교실
- 문의: 원동훈 유스티노 770-910-5656

행사 및 모임 안내

- 사목 회의
일시: 6월 5일(수), 8:15pm | 장소: 소성당
- 구역장 회의
일시: 6월 2일(일), 11:30pm | 장소: 112호
문의: 김영경 에스더 770-676-8672
- 꾸리아 월례 회의
일시: 6월 9일(일), 12:30pm | 장소: 대건 도서관
문의: 이영숙 데레사 770-625-0787

본당 알림


- 피에타 성가대원 및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이정란 안젤라 770-401-5374
- 장례 미사 및 연도 요청은 연령회에 연락바랍니다.
문의: 이수진 브렌다노 404-933-8233
- 혼인 성사를 요청하는 경우 6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 보관 중인 연도책은 사무실로 반납 바랍니다.

골프 레슨 안내

- 접수: 6/2(일) ~ 6/9(일)
- 대상 : 초급반 (6명), 중급반(6명)
- 레슨일시 : 초급반 6/21(금), 중급반 6/22(토) 시작
매주 9am~11am (약 10주간 예정)
- 장소 : Northcrest driving range
- 강사 : 최치남 요셉 프로
- 문의: 친교분과장 남기원 요한 404-966-1919

골프 레슨 1회 비용은 \$20이며, 수의 중 일부는 Driving Range로, 나머지는 성당에 기부됩니다. 상급자반은 추후 별도로 편성하여 Browns Mill Golf Course에서 실시 예정입니다. 신자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6월 8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예수 성심 대축일에 바로 다음날은 늘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며, 기도하시는 성모 성심을 공경하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입니다.

예수 성심을 공경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성모 신심에 대한 공경은 17세기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의 요한 외드 성인의 노력으로 점점 보편화되어, 예수 성심 미사에서 기억하는 형태로 전례 안에서 거행되기 시작하였다. 비오 12세 교황은 1942년 성모님의 파티마 발현 25주년을 맞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세상을 봉헌하고 이 기념일을 온 교회가 지내게 하였다. 처음에는 8월 22일에 선택 기념일로 지냈는데, 1996년 경신성사성 교령에 따라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토요일'에 '의무 기념일'로 지내게 되었다.

성모 성심께 우리 자신과 온 세상을 맡겨드리며 전구를 청합시다!

2024년도 로사리오 평생 대학 새학기 등록

- 등록 일시: 4월 14일부터
- 등록 장소: 친교실/성당 사무실
- 새학기 개강일: 2024년 5월 7일
- 문의: 박미헬 404-819-9227
서미영 아네스 404-610-0057

2024-2025학년도 대건 한국학교 등록

- 등록대상: Pre-K(만4세) ~ 12학년
- 수업기간: 8월10일~12월7일(16주간)
- 수업내용: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 특활수업: 미술, 태권도, 동요, 무용, 서예, 난타
- 문의: 노시현 네오미시아 678-677-3515
kmccga.DaegonKoreanSchool@gmail.com

10월 이탈리아 순례안내

- 일정: 10/27(일) - 11/7(목) 애틀랜타 출발/도착
- 순례지역: 밀라노-베로나(단테/로미오&줄리엣) -나폴리-로마
- 순례비용: \$ 4,700
- 지도신부: 염영섭(로렌조)신부님
- 신청: 신청서, 여권카피 • 신청비: \$1,500
- 문의: 이순옥 아가다 770-295-9153

기도 부탁드립니다

병 중에 계신 분들

김미영(인덕마리아)	이기산(스테파노)
김선숙(모니카)	이금숙(세실리아)
김원봉(대건 안드레아)	이수진(브렌다노)
김창영(루가)	장충순(도미니카)
류영래(세실리아)	정병준(안나)
민병숙(라파엘라)	정창래(방지거)
박영자(빅토리아)	조갑득(마리아)
박정자(데레사)	조경희(글라리아)
박줄리(히아친타)	채종현(아오스딩)
박평하(요한)	최대일(프레드릭)
안정주(소피아)	최순례(아나타시아)
유옥희(모니카)	James Almeida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2024년 세례를 받으실 분들과 견진을 받으실 분들을 위해

2024년 Youth summer camp 유스 섬머캠프

- 일시: 7/18(Thu) ~ 7/21(Sun)
- 장소: Pine Eden Camp site Hamilton, GA
- 대상: Rising 9th - Seniors
- 참가비: Early registration(5/12-6/1) \$185
Regular registration (6/2~) \$200
- 문의: Stella Kim 679-979-8145


2024 KMCC VBS Vacation Bible School



Bring your friend !!

- 대상: PreK - Rising 6th(age 4 or older as of August 31)
- 일시: 7/26(Fri)-7/28(Sun)
7/26(Fri) 5pm-8pm, Dinner included
7/27(Sat) 2pm-5pm Snack included
7/28(Sun) 11:45am(Mass)-5pm, Lunch included
- 신청비: First child \$40, Sibling \$35 (seating is limited so register early)
- 장소: KMCC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of Atlanta
- 문의: 정지윤 Cecilia (VBS coordinator) 408-878-5426 Cjjung@gmail.com

PROMISE TO PROTECT



PLEDGE TO HEAL

도움과 치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드리기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애틀랜타 대교구는 학대 또는 피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을 운영합니다.

Archdiocesan 24-hour Abuse Reporting hotline: 1-888-437-0764

THE ROMAN CATHOLIC ARCHDIOCESE OF ATLANTA

Georgi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ivision of Family and Child Services (DFCS): 1-855-GA CHILD (+1 855-422-4453)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5